

# ISSUE & FOCUS

[2014 종합국력 발표지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가전략을 기대한다

김소열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2014 종합국력지수 발표]

##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가전략을 기대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김소열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주문이다.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분석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강화하거나 활용하고, 또는 보완하고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기법이다. 기업의 사정도 이러한데, 국가는 더 더욱 복잡한 계산법과 세밀한 전략 수립, 그에 따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선진화지수와 더불어 종합국력지수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선진화지수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분야의 32개 항목을 평가지표로 삼아 분석했다면, 종합국력지수는 하드파워에 해당하는 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교육력, 과학기술력, 정보력, 환경관리력 등 7개 분야(세부지표 70개)와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 등 6개 분야(세부지표 51개)를 가중치를 뒤 산정하고 종합한 결과다. 두 지수의 차이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진화지수고,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종합국력지수라 할 수 있다.

### 종합국력 2009년 13위에서 2014년 9위로 4계단 꺾춤

한선재단이 2009년 첫 발표 이후 5년 만에 발표한 이번 종합국력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9위를 차지했다. 2009년(13위)과 비교해 4단계 꺾춤 뛰어 오른 것이다. 순위가 상승한 요소국력은 변화대처력(10→6위), 환경관리력(15→11위), 국방력(8→5위), 정보력(11→9위), 경제력(11→10위), 교육력(11→10위), 국정관리력(10→9위)이었다. 과학기술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에서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반면 순위 하락에 기여한 요소국력은 정치력(14→15위), 기초국력(13→14위)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은 만족스럽지만 과제 역시 결코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하드파워(10위)가 소프트파워(11위) 보다 강하다. 대한민국이 향후 거칠고 강한 국가 보다 세련되면서도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 분야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국력의 물적·기술적 기초가 되는 하드파워 분야를 경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세계 석학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한계를 문화력과 외교력 등의 소프트파워가 보강하는 스마트파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우리가 소프트파워 중 특히 신경 써야 할 분야가 있다. 중하위권 순위인 12위를 차지한 외교력이다. 이 분야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교활동 영향도는 11위였고, 활성도는 15위를 기록했다. 즉 외교활동의 활성도가 영향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2009년 활성도가 7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크게 뒷걸음질 쳤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장기 국가전략 과제 수립

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번 종합국력지수 발표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국익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 가입을 확대해야 하며,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주요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 노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력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국가의 지향 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력은 국가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력은 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정치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정치 후진성이 대한민국 국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력 중 특히 정치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비효과성(14위), 국회 입법활동의 비효과성(16위), 정치인들을 사회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16위), 그리고 정치인들의 비청렴성(13위)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확인됐다.

이번 지수발표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국력의 최대 크기는 그 나라가 지닌 경제력(10위)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력의 강점을 국방력과 과학기술력, 변화대처력으로 꼽고, 이 분야가 향후 승산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영역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분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취약 요소국력은 기초국력, 사회자본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환경관리력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국력은 주어진 조건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경청하고 그에 걸 맞는 처방과 개조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호(號)의 방향타 될 종합국력지수, 정부도 관심 쏘아야**

우리의 종합국력 측정 이유는 제대로 된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취약한 부분과 강점인 부분, 승산이 있는 부분과 주력해야 할 부분을 짚어 내고, 그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와 효과적인 추진 방법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종합국력 측정은 오늘을 진단함으로써 내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향타(方向舵)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지도 한 장조차 없는 위험한 비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국가전략 수립 없는 국가운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과 결실을 모두 잃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들도 종합국력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기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주요국의 종합국력을 측정해 그 결과를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일본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연구개발기구(NIRA)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감소가 국력 저하의 심각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지표체계를 개발해 국력을 비교하고 있다. 보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만큼 종합국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선재단의 종합국력지수는 각 국가별 기본 자료, 그리고 세계 기관들의 여러 조사 연구 결과 중 관련한 자료를 직접 활용하거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산정, 산출해 내놓은 결실이

다. 한선재단과 연구진들은 이번 종합국력지수 발표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국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면 더도 덜도 바랄 것이 없다.